



열심히 달렸는데...허망한 '아웃'

28일 OB맥주공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토너먼트 광주신나부러야구단과 한울바쿠스의 경기 5회초 1사 신나부러야구단의 정대길(가)이 서호형(나)의 중전 안타때 홈으로 쇄도하다 아웃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속한 골대 손흥민 리그 3호골 불발

레버쿠젠-프라이부르크 0-0 비겨
스완지시티 기성용도 0-0 무승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22·사진)이 골대를 맞히는 불운 속에 공격 포인트 작성이 실패했다. 손흥민의 소속팀 바이엘 레버쿠젠은 27일(현지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린 2014-2015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6라운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선발로 나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빈 손흥민은 몇 차례 좋은 기회를 잡았으나 끝내 골과 연결하지는 못했다. 후반 27분에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를 잡기도 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아쉬움을 남긴 손흥민은 후반 42분에 프리킥 기회를 얻었으나 골대를 맞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 25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리그 2호골을 넣은 손흥민은 이날 리그 세 번째 골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3승2무1패가 된 레버쿠젠은 4승2무의 바이에른 뮌헨에 승점 3점 뒤진 3위에 올랐다. 한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기성용(25·스완지시티)은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경기도 0-0으로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허버베이스볼·베프스 무등기 4강 안착

제 4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8강 2경기·광일 16강 6경기

오렌지클래쉬 3호런 폭발 열기 '화끈'

허버베이스볼클럽과 베프스가 무등기 준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3주차 경기가 27·28일 무등중학교와 OB맥주공장 야구장에서 펼쳐졌다. 무등리그 8강 2경기과 광일리그 16강 6경기가 주말 그라운드를 야구 열기로 물들었다. 무등리그의 허버베이스볼클럽이 가장 먼저 준결승행을 결정지었다. 허버베이스볼클럽은 새사랑메디칼과의 8강전에서 7-4, 역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선전했다. 베프스도 아이프렌즈와의 대결에서 5-4, 1점차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결승을 향한 관문을 넘겨

두게 됐다. 광일리그에서는 무등산생태요양병원, 광주레인보우, 오렌지클래쉬, 광주슈퍼스타즈, 한울바쿠스, 백구클럽이 승자가 됐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과 레인보우는 상대팀의 기권으로 행운의 승을 거뒀다. 오렌지클래쉬는 3개의 홈런포를 앞세워 패밀리를 12-4로 꺾었다. 오렌지클래쉬의 조민이 1회와 3회 솔로포를 터트렸고 한영현도 1회 스리런을 날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패밀리의 정민호도 손맛을 봤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광주슈퍼스타즈는 1회 3점의 리드를 지키며 10-8로 터틀스를 꺾고 광일리그 8강에 합류했다. 한울바쿠스는 2-2로 맞선 2회 4점을 추가한 뒤 3회에도 대거 5득점에 성공하며 신나부러야구단과의 승부에서 15-3 승리를 장식했다. 백구클럽과 버팔로즈의 무등기 단골 손님들의 맞대결에서는 백구클럽이 승리했다. 백구클럽은 3-5로 뒤진 5회 역전에 성공한 뒤 6회 4점을 보태며 9-5 승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기 전적

◆무등중학교	
◇1경기	
무등산생태요양병원	1111111-7 (기권승)
광주버스터즈	0000000-0
◇2경기	
레인보우	1111111-7
블루코리아	0000000-0
◇3경기	
오렌지클래쉬	60033-12
패밀리	10300-4
▲승리투수 : 이상욱 ▲홈런 : 조민 1·3회 1점, 한영현 1회 3점 (이상 오렌지클래쉬), 정민호 3회 1점(때밀리)	
◆OB맥주공장 야구장	
◇1경기	
광주슈퍼스타즈	3000052-10

터틀스	005003 - 8
▲승리투수 : 김민규	
◇2경기	
한울바쿠스	24504-15
신나부러야구단	20010-3
▲승리투수 : 나형철	
◇3경기	
백구클럽	021240-9
버팔로즈	014000-5
▲승리투수 : 조철휘	
◇4경기	
허버베이스볼클럽	0031102-7
새사랑메디칼	0100201-4
▲승리투수 : 유기룡 ▲홈런 : 김만철(7회 1점)	
◇5경기	
베프스	030020-5
아이프렌즈	0101002-4
▲승리투수 : 정재철	

광주FC 안양에 덜미

K리그 챌린지 29라운드

흥경기서 2-1 패배...5위 추락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FC안양이 광주FC를 제물로 삼아 최근 5연패에서 탈출했다. 안양은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9라운드 원정에서 2-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6경기 만에 승점 3을 보탠 안양(승점 40·골득실-7)은 4위 수원(승점 40·골득실+4), 5위 광주(승점 40·골득실+3)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오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전반 43분 박성진의 선제골로 균형을 깬 안양은 후반 16분 정대선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반격에 나선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임선영의 추격골이 터졌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다. 수원FC와 고양 Hi FC는 1골씩 주고받는 공방 속에 승부를 내지 못했다. 수원은 승점 1을 보태 이날 패한 광주를 골득실 차로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